

“100년, 200년 이어지는 명품 마라톤대회 돼 달라”

마라톤 스타들,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50년 축하



42-195
 광주일보 3·1절 마라톤대회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5. 2. 25 황영조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반세기의 역사가 100년 200년 끝까지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이봉주
 마라톤



“축하합니다.”
 50주년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대회
 최고의 마라톤 대회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김재룡
 2015. 2. 23



황영조·이봉주·김재룡 사인과 함께 응원 메시지

“광주 육상이 강한 건 광주일보 3·1절 마라톤이 비결이었군요. 호남마라톤과 한국마라톤을 이끈 전통과 역사를 계속 이어가길 기대합니다.”(문주익의 영웅 황영조)
 “우와, 광주일보 3·1절 마라톤이 50년째라구요? 정말 놀랍네요. 축하합니다. 반세기의 역사가 100년, 200년, 끝까지 이어지길 기원합니다.”(국민마라톤러 이봉주)
 “제 마라톤 인생의 출발은 광일마라톤이었습니다. 광일마라톤이 최고의 마라톤 대회로 발전하길 바랍니다.”(국가대표 마라톤 감독 김재룡)

황영조·이봉주·김재룡 등 한국 마라톤 스타들이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50년을 축하했다.

‘문주익의 영웅’ 황영조는 반세기를 맞은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대해 “한국 육상 장거리의 초석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토대 위에서 광주·전남의 육

상 강세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황영조는 광일 마라톤 50년을 축하하며 “3·1절 마라톤 대회를 통해 세계적인 선수가 육성됐고, 엘리트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달리기로 호남인들의 건강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바르셀로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영조는 지난 2005년 44회 대회 때 광일마라톤을 직접 뛰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2015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몸을 만들고 있다”며 “건강을 되찾아 올해 꼭 하프를 뛴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 권위의 마라톤대회인 ‘보스턴 월계관’을 쓴 이봉주도 광일 마라톤 50년을 응원했다.

이봉주는 “광일마라톤 50년을 축하한다”며 “광일마라톤이 100년, 200년까지 이어지는 명품 마라톤이 되길 기원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봉주는 “마라톤은 전신운동으로써

신체리듬을 찾는 데는 이만한 운동이 없다”며 “젊어지려면 마라톤을 하라”고 추천했다.

그는 또 “마라톤 당일 오버페이스를 하면 부상당할 수 있으니 절대 무리해선 안 된다”며 참가자들에게 ‘안전제일’을 당부했다.

국내 선수로는 처음으로 2시간10분대 벽을 깨고 1993년 보스턴마라톤에서 2위를 차지한 김재룡(국가대표 감독)은 “광일마라톤은 호남 마라톤의 역사”라며 “자신의 꿈을 심어주고 이루게 해준 소중한 대회”라고 회상했다.

김재룡은 1984년 25회 대회에서 고등부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광일마라톤 우승을 계기로 국가대표의 꿈을 꿔고 9년 뒤 국내 선수로는 처음으로 2시간10분대 벽을 깨고 보스턴마라톤 2위를 차지했다.

김재룡은 “광주·전남 육상인이라면 광일마라톤을 거치지 않으면 안됐다”며 “이제 광주·전남뿐 아니라 전국의 마라톤러를 배출하는 산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3 “우리가 된다”

“달리기 통해 함께하는 세상 꿈꾼다”

나주마라톤동호회

매주 수·토·일요일 정기훈련
금성산마라톤축제 주관하기도

“달리기를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꿈꾼다”
 나주마라톤 동호회는 인생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고, 달리기 통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려는 60여명의 달림자들이 모여 2002년 2월21일 첫발을 내디뎠다. 13년이 지난 지금은 100여명의 회원이 함께하는 대가족 동호회로 성장했다.

건강을 우선 목표로 각자의 몸상태에 맞춰 5km, 10km, 풀코스, 100km 울트라에 도전하고 있는 이들은 나주 곳곳에 건강한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 동신대 운동장에서 한수제까지, 금성산 임도길을 돌아오는 환상적인 산길과 오두재에서 동막골 골짜기를 따라 이별재까지 달리는 코스, 그리고 영산강 줄기를 따라 달려보는 강변도로코스 등 나주마라톤 동호회는 나주 곳곳을 누비면서 실력을 키워가고 있다.

개인훈련을 통해 실력을 쌓고 있는



올 시즌 스타트를 3·1절 마라톤대회로 정한 나주마라톤동호회 회원들이 2015년엔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나주마라톤동호회 제공>

이들은 매주 수요일과 토·일요일에는 정기 훈련을 갖고 함께 호흡을 맞춘다. 영산강 둔치, 동신대와 금성산 한수제가 열정 가득한 이들의 만남의 장소다. 이들의 마라톤 사랑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마라톤은 이들에게 또 다른 삶이기도 하다. 전국의 마라톤 동호회와 교류 활동하며 인생의 즐거움을 나누는 것은 물론 직접 대회를 주관해 화합의 장도 만들고 있다.

올해도 13회를 맞는 나주 금성산 산

길 마라톤 축제는 동호인들이 주관하는 행사로, 이들은 전국 각지의 마라톤 마니아들을 초청해 단풍이 아름다운 9월의 금성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라톤을 통해 건강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 이들은 3·1 전국 마라톤 대회를 통해 새봄 기지를 펴나. 겨우내 쌓여왔던 회원들의 실력도 점검하고 나주마라톤 동호회의 저력도 알리겠다는 각오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7명 출전... 동료애로 전원 완주해야죠”

기아차광주공장 마라톤클럽

창단하자마자 대회에 참가
U대회 성화봉송 주자 신청

“5·18 민주화운동의 흔적이 남은 역사적인 곳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매년 3·1절 마라톤 대회는 우리 동호회가 가장 기다리는 행사입니다.”

창단 13년을 맞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마라톤클럽(회장 김경민)이 올해도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참가를 위해 담금질을 하고 있다.

100여명의 회원으로 이뤄진 이 동호회는 창단하자마자 3·1절 대회에 참가해 왔다. 올해엔 27명의 선수를 출전시킨다. 매년 20명 가량 참여했던 것에 비해 많은 수다.

오인수(45) 총무는 “회원들의 근무시간이 주·야간으로 섞여있다 보니, 대다수의 참여는 어렵지만 광주를 대표하는 대회인 만큼, 꼭 참여하려는 회원들이 많다”며 “만세삼창을 부른 뒤 광주의 역사적인 장소를 도는 코스에서 회원들끼리 함께 호흡하는 게 이 대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동호회가 짊어 3·1절 마라톤의 특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마라톤클럽 회원들이 최근 열린 한 대회에서 질주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징은 출발지(아시아문화전당)와 끝인 지점(상무시민공원)이 달라 코스가 다채롭다는 것이다. 특히 깊은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매년 대회운영이 성숙하고 있다는 점도 동호회원들이 꾸준히 참가하려는 이유다.

기아차 광주공장 마라톤 클럽의 특징은 광주공장의 50개 동호회 가운데 유일한 마라톤 동호회이며, 가장 동료애가 깊은 곳이라는 것. 완주를 위해 수개월간 함께 노력하고, 완주 뒤에는 서로를 다독이다 보니 ‘가족 같은 분위기’로 꾸러질 수밖에 없다. 업무를 떠나 ‘형님, 아우’로 지낸 세월이 길어진 만

림 산행을 통한 훈련도, 연말에 열리는 송년회도 회원은 물론 회원 가족까지 아우른다. 함께 뛰는 마라톤을 지향하는 이 동호회는 광주에서 열리는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화봉송 주자도 신청했다.

창단 10년을 넘긴 만큼, 실력과 회원도 나왔다. 정현(43) 사무장의 경우 최근 열린 대회에서 풀코스 2시간46분대의 호성적을 냈다. 호남권에 5위 안에 드는 실력자라는 게 오 총무의 귀뜸이다. 정 사무장은 올해 대회에서 2시간43분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제주도여행 폭탄세일

2014년 12월 15일 ~ 2015년 3월 15일

나는 제주여행을 (2453일)

₩109,000원에 가다~

선박(씨스타크루즈) 08:50 목포항출발 ₩109,000원 ~ ✈ 항공(아시아나) 15:40 광주공항출발 ₩189,000원 ~

1일째	선박 08:00 목포항집결 13:30 제주항도착직원미팅 항공 14:30 광주공항집결 16:20 제주공항도착직원미팅	수목원테마파크-아이스뮤지엄-트릭아트 HOTEL: 일반호텔(4~6인실)	중식: 자유식 석식: 호텔식
2일째	조식후-아침이 이쁜슬림바다~외돌개 올레6,7코스트래킹 석부작대마늘원-감굴따기체험=중문포구~별내천전망대, 천연내대림지대 중식후-카멜리아 힐-겨울의꽃 동백동산	서커스월드or코끼리쇼(현지직접) HOTEL: 일반호텔(4~6인실)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호텔식
3일째	조식후-민,공예품전시장=조방말체험 제주성읍민속보존마을체험-중식·광치기해안-제주의오름을 한눈에볼수있는 트리어빙수산간도로 에코랜드-기차타고꽃자왈(자연원시림)숲시대관광 · 농,수산물직매장 - 해녀촌	몽골리안 마상쇼(현지직접) 포항사항: 선박및항공료, 현지차량료, 발차차임요금, 숙박비, 여행자보험 필요항사항: 음력현지차량비, 기사, 가이드비 1인 ₩10,000원 * 광주출발-목포-광주도착20명이상전원버스 1인 ₩20,000원	조식: 호텔식 중식: 토종돼지 불고기정식 석식: 자유식

※상기일정 은 현지상황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상품은주중매커지됩니다. *2인실: 1박당 30,000원 추가 *산악회 별도모의

황제 산악회 매월 첫째주 화요일 투입됨 07:30, 광주역 08:00, 문예회관 08:10 출발합니다.
홍보이시: 문명구 1부 010-3999-3226

※ 문의처 | 해외, 국내, 섬투어 전문여행사 **황제관광여행사** 광주광역시 북구 효산로 5 ☎ 062)267-8580 ★ 담당자 | 문명구 H.P 010-3999-3226 FAX 062-267-8581